

미주진출 한국기업 중간연봉 4만3천불

마케팅·파이낸스 6만불 최고

미주진출 한국기업 직장인들의 중간 연봉은 4만3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저지에 소재한 다국적 리쿠르팅 회사인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대표 김성민)은 최근 '미국내 한국기업의 직종별 중간 연봉 및 복리후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마케팅과 파이낸스 부서의 직원들이 6만 달러의 중간 연봉을 기록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 그 뒤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5만8000달러, 세일즈 직종이 5만3000달러, 인사와 생산 관리가 4만5000달러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로지스틱 부서는 중간 연봉이 3만8000달러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올해 임금 증가율은 지난해 4.8%보다 낮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리후생 분야는 75.6%의 회사들이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외에 초과보험은 53.6%, 안과는 43.4% 등으로 미주진출 한국기업들의 복리후생 수준은 예상외로 높지 않았다. 401K는 전체 기업중 45.1%만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장·단기 장애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8.5% 수준에 그쳤다.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사의 김성민 대표는 "이번 조사는 향후 한국기업에 취업하려는 한인들에

미국내 한국기업 직종별 중간 연봉

직종	중간 연봉 (단위: 달러)
마케팅, 파이낸스	6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5만8000
세일즈	5만3000
인사, 생산관리	4만5000
구매	4만
회계	3만9000
경영관리, 로지스틱	3만8000

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월동안 미국내 98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사는 LA와 중국, 홍콩 등에서 리쿠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업사이트 Jobworldusa.com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연 기자

가주 생산 맥주 전국 최고 품질

파이어스톤 패일 앨 1위

남성 전문 잡지인 '맨스 저널'은 미 전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고의 맥주 톱 25'를 선정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맥주의 도시인 보울더(콜로라도주), 밀워키(위스콘신주) 등을 물리치고 가주에서 생산된 맥주들이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버드 와이저', '쿠어스'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맥주들은 '새뮤얼 애덤스 블랙 라거'(16위)를 제외하고는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가주의 파소 로블스에서 생산되는 '파이어스톤 워커 패일 앨(사진)'이 1위로 뽑혔고 '독피시 헤드 60 미니트 IPA'(델라웨어주 밀튼), '스타우츠 필스'(펜실베이니아주 애덤스타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우석 기자

① **중앙일보**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The Korea Daily (USPS 066-730)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264.00 including applicable Califor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398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Los Angeles, Calif.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3983

Section A-U.S. Edition
Section B-Korea Edition
Section C-Sports
Section D-Classified Ads
Section E-Weekly Joongang
Section F-Life